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2]2228-0180

# 光州日報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찾아드립니다.**  
 대표강심전호 상담원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 민선 4기 과제와 전망

1 지역 경쟁력을 높여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선 4기가 시작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참여 제고는 지방자치 시대 이래 항상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민선 3기 광주·전남의 살림살이와 지방의정을 되돌아보고 새로 맞는 지방자치 4년의 과제를 제시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 투자유치·고용 창출 최대 과제

제조업 성장률 등 각종 지표 여전히 낮아  
 지역생산기반 늘려 지방재정력 강화해야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난 2002년부터 4년동안 광주·전남은 여전히 낙후를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생산기반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등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각 자치단체의 구호를 무색케 했다.

▲지역내 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시·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 지역내 총생산의 정도에 따라 해당 지역 재정자립 상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선 4기 역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생산력 확충을 지방자치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민선 3기 출범 직전인 2001년 말과 3년 후인 2004년말(2005년 통계는 처리중)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6개 시도에서 광주는 9위, 전남은 13위로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지역생산력의 바로미터인 제조업 성장률은 광주가 16.2%로 전국 9위, 전남은 12.5%로 11위에 그쳐 민선 3기 3년동안 양 지역의 생산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양 지역의 건설업도 부진해 광주는 13.5%로 9위, 전남은 11.5%로 11위에 그쳤다.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01~'04)

순위	시도	2001년	2004년	성장률
1	충남	29,787,646	38,138,563	28
2	울산	28,418,855	35,574,769	25
3	경북	40,976,724	51,198,164	25
4	경기	117,654,606	146,755,052	25
5	충북	19,531,164	23,552,311	21
6	인천	27,427,292	32,132,214	17
7	대전	14,053,464	16,373,579	17
8	경남	41,083,904	47,607,918	16
9	광주	13,007,721	14,869,493	14
10	전북	19,298,132	21,995,674	14
11	강원	16,391,137	18,469,017	13
12	부산	36,091,423	40,338,883	12
13	전남	27,621,781	30,543,036	11
14	서울	143,087,757	156,681,380	10
15	제주	5,691,656	6,228,061	9
16	대구	20,808,913	22,297,751	7

올의 경우 도·시·군·구별 광주는 13.1%로 상위권인 전국 4위에 올랐으나 전남은 -5.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다. 전남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척도를 나타내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성장률이 같은 기간 3%에 그쳐 전국 최하위였다. 광주는 16.6%로(11위)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같은 추이는 곧바로 같은기간 양 지역의 낮은 부가가치 증가를 떨어뜨려 광주지역 부가가치 증가율은 13.1%로 9위, 전남은 9.2%로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양지역의 총생산 증가율이 낮은 것은 열악한 지역생산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선 3기동안 광주·전남이 생산기반 확충과 투자유치를 시·도정과 기초자치단체의 최우선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산시설 부족과 투자여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건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역생산력 증대는 곧 지방재정력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경쟁력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민선 4기에서도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세일즈 행정이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과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정철웅 등 3인)이 '제 11회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오전 광주천 자전거도로 일대에서 개최한 '바이크 코리아 2006' 행사. 이날 행사에는 환경청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해 광주천 복개상가~태평극장 3km 구간을 달리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호소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올 가을 정치권 빅뱅 온다"

본보 인터넷패널 236명 조사 96% "정계개편 불가피"

광주·전남 여론주도층 5명 가운데 4명은 5·31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인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 주도 세력은 5명 중 3명이 고건 전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계개편 시기는 '올 가을 이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열린우리당 일부+민주당+국민중심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같은 관측과 여론은 광주일보가 5·31 지방선거 직후 수도권 지역구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40명중 28명(70%)이 통합론에 찬성했고, 10명이 '열린우리당+민주당+고건 전 총리'와의 3자 연대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비슷한 결과였다.

정계개편 시기는 '올 가을 이후'라는 응답이 60.6%로 최다수였으며, '올 7월께'는 27.1%, '내년 초' 10.6%, '지금 당장' 1.7% 등이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개헌과 관련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56.4%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다. 24.6%는 '현행대로'(5년 단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선화**  
**LPGA 첫 승**  
 슐라이트클래식  
 ▶18면

포항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생명보험 02-552-4414 ▶1,062-610-4414  
 ▶생명보험 0985-5531 ▶1,061-360-5000

## 대법관 후보 15명 대법원장에 추천

제청자문위...안대희·전수안씨 등 포함  
 <서울고검장> <광주지법원장>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3배수)을 선정해 이응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중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욱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법관 적격 후보자 15명(3배수)을 선정해 이응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중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욱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대학장, 한상호 변호사(가나나순) 등이다. <관련기사 3면> 이응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 심의 내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후 이르면 7일, 늦어도 9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응훈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제청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청 대상자는 이들 15명 중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면 이달 하순에서 내달 초순 사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13회 무등기 고교야구  
**출전팀 프로필** ▶19면

제 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축제(유치부) 공모  
 접수마감 : 6월 1일 ~ 21일까지  
 ▶http://www.kwangju.co.kr ▶전화 : (062)220-0541

2006/2006 우수어음상품 민중 선형 문화관광부 민중 상품 (유치부) (유치부) (유치부) (유치부) (유치부) (유치부)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b>유치부</b>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5. 500,000원 6. 600,000원 7. 700,000원 8. 800,000원 9. 900,000원 10. 1,000,000원	<b>유치부</b>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5. 500,000원 6. 600,000원 7. 700,000원 8. 800,000원 9. 900,000원 10. 1,000,000원	<b>유치부</b>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5. 500,000원 6. 600,000원 7. 700,000원 8. 800,000원 9. 900,000원 10. 1,000,000원	<b>유치부</b>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5. 500,000원 6. 600,000원 7. 700,000원 8. 800,000원 9. 900,000원 10. 1,000,000원	<b>유치부</b>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5. 500,000원 6. 600,000원 7. 700,000원 8. 800,000원 9. 900,000원 10. 1,000,000원	<b>유치부</b>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5. 500,000원 6. 600,000원 7. 700,000원 8. 800,000원 9. 900,000원 10. 1,000,000원